더 큰 사람, 아주 큰 사람

(마태복음 11:7~19)

10.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더 큰 사람, 아주 큰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더 큰 사람, 아주 큰 사람'
세계 3대 성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를 일컫습니다. 여기에 한 명을 더 보태서 4대 성인이라고 하면 소크라테스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세례 요한은 성인들보다도 더 큰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희한하게도 BC.4~5세기는 예수님을 제외한 성인들이 태어나서 활약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이들은 어김없이 '여자가 낳은 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하셨기에 하물며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아주 큰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급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에서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조차도 세례 요한보다 못하다고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보다도 작은 성인의 울타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탄의 파괴력을 측정하는 기준 중에 메가톤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폭발력은 1톤의 다이나마이트의 폭발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1메가톤이면 100만 톤의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규모가 0.02메가톤이었으니 메가톤급의 폭탄이 얼마나 강력할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메가톤급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크다면 한편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들 중에서도 크기의 구분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신 기준은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치란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겨서 성취하거나 갖게 될 때에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는 대상입니다. 성취한 가치의 크기만큼 사람의 크기도 결정됩니다. 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교수님이 큰 사람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권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면 대통령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권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 재벌 회장들이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력과 마찬가지로 재력 또한 인간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 눈에는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목회에 있어서 교인수와 큰 예배당과 넉넉한 재정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가치를 성취했기에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 있는 일을 평생토록 하게 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까이 가지고 오셨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끌어들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외쳤고 사람들의 마음이 천국과 상응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가까이 온 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세상의 대상들과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가치들보다는 천국의 가치가 귀중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가치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변화하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기운을 접하게 되자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의욕과 고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공자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사상을 갖춘 군자의 모습을 찾고자 했으며,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궁리했습니

다. 베드로 또한 나름의 고민과 의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자 이 땅에서의 고민과 의욕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가치는 메가톤급의 위력을 가진 폭탄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크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성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바로 이러한 가치들이 가져다주는 좋음을 다 폭발시켜 버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모든 사람이 좋게 여겨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갖게 되고 천국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되고 천국을 위해서 종사하게 되면 돈이라는 가치는 마음에서 폭발하고 사라져버립니다. 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기능은 남아있으나 돈에 대한 추구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반대로 돈이 있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대통령일지라도 천국을 갖게 되면 대통령이라는 가치가 마음에서 폭발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써의 기능만 남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통령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즉 큰 사람은 천국이라는 가치에 마음이 매인 사람입니다. 천국이 가진 메가톤급의 폭발력에 의해 이 세상의 가치들이 주는 좋음이 마음에서 날아간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천국은 이 세상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그 천국을 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천국은 마음에 떨어지는 메가톤급의 폭탄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을 폭발시켜서 좋지 않게 합니다. 마음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더는 좋다고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7~8절을 보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주석학자들은 갈대가 흔들리는 광야와 궁전을 상징적인 요소로 여겨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갈대와 같이 흔들렸다거나 그럼에도 하늘을 향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갔다는 등의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말 그대로 인간 세상에서 좋게 여겨 추구하는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지역에서 광야로 나가면 기껏해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밭을 볼 수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왕궁은 인간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총집결된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즉 왕궁을 향하는 것입

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러한 가치를 찾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왕궁을 향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왕궁을 향하지만 적게 가진 사람은 하급 관리가 되고 많이 가진 사람은 고급 관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왕궁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가치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층민이 되어 왕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발적으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금욕주의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여우로 불릴 정도로 영적인 욕구에 대한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욕구를 가지고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왕궁으로 상징되는 인간 세상의 가치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온 천국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었고 천국에 올인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바라기들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가치가 없을지라도 천국을 가지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천국 하나면 된다!”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선지자도 세례 요한처럼 강렬하게 가까이 온 천국에 매였던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위해 인생을 바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천국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기에 형벌과 심판을 강하게 기대하였고 이로 인해 실족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가진 천국에 대한 확신은 대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인격이 세례 요한을 입고 재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서 불 병거와 불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는 선민들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라기서 4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는 예언이 있었고 선민사회에서는 그 의미도 모른 채 엘리야가 오리라는 전승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확인한 사람이 이 땅에 오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가톤급의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메가톤보다 1000

배나 더 큰 기가톤급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산골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할머니가 우연히 십자가 복음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고구마 팔아서 자녀들에게 용돈 주는 것을 보람으로 사셨지만 마음을 천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낚시 바늘에 마음이 꿰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에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갈등을 겪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고 믿음을 회복하여 순교하였고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을 때의 세례 요한은 천국의 가치를 알았으나 천국을 경험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이름에 마음이 낚인 자들로써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우편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구마를 캐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기뻐할 수 있고, 자녀들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나 재벌들이 아닌 산골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할머니를 가장 큰 사람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의 마음에서 권력이든 재력이든 학식이든 세상의 모든 가치는 폭발되어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기가톤급의 폭발이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났을 때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왔던 세상의 가치들이 폭발해서 사라지고 기능만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담고 산다는 것은 배설물을 담고 살아가는 영적인 변비에 걸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천국을 가진 자에게서는 세상의 가치들의 좋음이 폭발되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기능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그 가치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 타락한 이후에 그것들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다, 권력은 높을수록 좋다, 일류대학일수록 좋다는 생각이 이와 같습니다. 일류대학이 악하니 삼류대학을 가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삼류대학에 가는 것이 일류대학보다도 자녀의 삶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일류대학을 지향하며 자녀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본문 16~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 비유하시고, 결혼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놀이에도 참여하지 않는 아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들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에 비유 된 이유는 이들이 천국의 가치를 알았지만 천국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기 위해 기쁨을 추구합니다. 천국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천국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니 장례식과 같은 죽을 맛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마음은 로미오를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는 줄리엣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라는 가치가 최고임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크다고 여기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로 비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입구이시며 접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드려짐으로써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장례식 놀이에서 결혼식 놀이로 바뀌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을 지나쳐서 몸으로 만나는 세상을 향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삶은 괴로워집니다.
천국이 없다면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일류대학을 가도 소용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소용이 없으며, 천국이 없다면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도 소용이 없다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마음만 가져도 성인들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메가톤급의 사람이 되었다면 기어코 십자가를 붙잡고 실제로 마음을 천국에 들여보내어 기가톤급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가톤급의 사람이 될 때에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용도로만 관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메가톤급의 사람에서 기가톤급의 사람이 되는 아주 큰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마음으로 장례식 놀이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필코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이 주님 따라 천국으로 감으로써 결혼식 놀이를 하는 천국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